



대구경북지역 5개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이 20일 모임을 갖고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종상(불국사 주지), 자광(직지사 주지), 장주(불국사 총무), 혜승(교문사 주지), 한사람 건너 베타(은혜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스님.

대구경북 5개 교구 본사 협력체제

포교·교육 등 공동추진

대구경북지역 5개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제 구축에 나섰다.

동화사 주지 지성, 은혜사 주지 베타, 직지사 주지 자광, 불국사 주지 종상, 교문사 주지 혜승 스님 등 조계종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은 6월 2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가진 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 운영에 관한 회의에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

유니버시아드 불교관 합동재정지원

매월 정기모임 지역불교 활성화 모색

하는 것을 기본으로

대외 조직위 차원의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등 교구 본사의 공조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님들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각 교구본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오던 성지순례, 방생법회를 비롯 포교, 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를 5개 교구본사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 운영에 관해 지역불교계가 서로 공동으로 운영

하는 것을 기본으로

대외 조직위 차원의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등 교구 본사의 공조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님들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각 교구본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오던 성지순례, 방생법회를 비롯 포교, 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를 5개 교구본사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 운영에 관해 지역불교계가 서로 공동으로 운영

탈북자 사회정착 돕는다

물운대복지관, 49명 대상 적응 훈련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련스님)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교계에서는 최초로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관장 정련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물운대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사하구 관내에 살고 있는 탈북자 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 대부분은 이념과 체제 차이로 남한사회 적응에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운대복지관은 시행착오를 거쳐 병원, 미장원, 관공서 함께 가기, 컴퓨터, 영어회화, 직업 훈련기관 소개 등 일상생활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중이다. 특히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데다, 신변안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탈북자들이 집단 프로그램에 거부감을 보여 모든 프로그램을 1:1 개별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3개월째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이모(33)씨를 비롯, 4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가중이다. 그러나 탈북자 명단 확보에 3개월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탈북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굳게 닫혀있다.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여긴 물운대복지관은 7월 8일경, '탈북 주민한마당' 행사를 열어 탈북자들과 탈북자 지원 실무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사



부산 물운대복지관에서 한 탈북자가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전문화체험도 진행, 친화력을 키우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한에서 보내는 첫 1년 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 9월경에는 상세한 일상생활정보와 직업훈련기관, 취업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정착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물운대복지관 김윤경 과장은 "부산에만 대략 200세대의 탈북자가족이 살고 있고, 탈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탈북자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월드컵 만다라 캐물 통도사, 회향대법회

통도사(주지 현문)는 6월 25일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기념하여 제작한 월드컵만다라 캐물 회향대법회를 병행했다.

점안을 마친 높이 11m의 월드컵만다라캐물탱(사진)은 6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통도사상선박물관 중앙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천미희 기자



시민·단체 70여명 발우공양 초청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친환경 식사" 홍보



운문사 승가대 학강일문 스님이 발우공양을 설명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회장 고경순)은 6월 24일 지역의 시민환경운동단체 회원들과 불자 및 일반인 70여명을 초청해 친환경적인 불교계 식사 예법인 발우공양을 소개했다.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법당에서 열린 '발우공양'의 초대에는 녹색

소비자연대, 씨알생협,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명의 참가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불교식 공양법을 접하는 기회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불교식 공양법을 접하는 기회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불교식 공양법을 접하는 기회도 가졌다.

홍근수 목사 출판기념회

동명불원 대응전서 열어

목사의 출판 기념회가 대응전 법당에서 열렸다. 화제의 주인공은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를 이끌어 온 홍근수(65·서울) 목사. 홍목사는 23일 부산 동명불원(주지 도관)에서 '한민교회 자원봉사 기념 "희한한 나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과 대화는 곧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는 홍목사의 지론을 따를 것이다.

천미희 기자

"양산·통도IC영업소

통도사 상징 건물 건립

양산시민들 요구

양산지역 시민들이 이전 개설 공사를 밟고 있는 양산·통도 인터체인지(IC)의 영업소와 요금소를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 형태로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통도IC는 인근에 통도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업소와 요금소를 통도사 모양을 띤 건물로 건립할 것을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은 "기존 공사비보다 3배 이상 많이 필요하다"며 "건립을 제충할 경우 검토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경주 남리사 발굴조사지 전경.

경주 남리사 통일신라시대 사찰

경주문화재연, 절터 발굴조사결과

경주 남산의 남리사(南里寺)가 그 규모 면에서 감은사에 대비되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사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단장 최명식)는 3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적 제311호인 경주 남산 일원 정비사업 일환으로 경주 남리사 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 기초 흔적만 남은 동·서 두 탑의 구조와 회랑, 중문지, 부석유구, 와무지 등을 조사·수

습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있는 동서 양탑지 중 먼저 동탑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남북 12m, 동서 10.8m, 두께 약 1.8m이상의 반구형 탑축기부를 조성한 뒤 그 상면 정중앙에 탑좌적심구를 만들어 조탑되는 등 탑지의 내부구조에 있어 건설한 축조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리사는 외형과 내부구조가 매우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박원구 기자

팔공산 파계사 설법전 낙성식 봉행

시주금 내역 공개

팔공산 파계사는 6월 24일 설법전 건립봉사를 회향하는 낙성식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파계사 주지 성우 스님, 영산율원장 월우 스님 등 사부대중 7백 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9월 착공한 파계사 설법전은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00여평 규모로 공사비 12억여원을 투

입, 지난해 4월 1층을 완공해 공방간으로 임시 사용했다.

특히 불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법전 건립 시주자들의 명단, 금액과 함께 자세한 내역을 설법전 앞 게시판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성우 스님은 "지역 불교 포교와 신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3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회사상 · 민야사상 · 회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및 불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봉수(동산불교대교수) · 문윤식(동국대교수) · 권만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중(동국대교수) · 최홍석(동국대교수) · 윤영문(문화재단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효귀(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당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경도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성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 불교학과(100명) · 불교학과(100명) · 불교학부(50명) · 다도학과(50명) · 우리문화학과(30명) · 미술학과(30명) · 불어학과(30명)	· 불교를 전공 · 신학대학자 ·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6월 2일~ 2003년 8월 2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주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우리문화)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미술)	· 통신반은 · 지방거주자나 · 출석수강이 ·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3년 8월 9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학과 이외의 학과 : 9월 첫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구로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문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점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와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계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